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⑭ 판소리



이준권
판현교사무국장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등 다섯 마당으로 정착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鼓手, 북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추어 노래, 말, 몸짓을 섞어가며 공연하는 것이다. 솔로 오페라로 비유된다. 판소리는 조선 후기 서민 예술의 발달과 함께 크게 발전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문학의 저변이 서민층에게까지 미쳐 한글소설과 사설시조가 유행했다. 한글소설은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벌하는 내용이 중심이 된 것으로, 지금도 널리 보급되어 있는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한글소설의 특징은 용어가 한문에서 한글로, 작기도 양반으로부터 하급 신분 출신으로 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시조(時調)에서도 사설시조(緜繚詩調)는 정형화된 틀을 깨고 남녀간의 애정이나 현실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이 많았다. 미술에서는 풍속화라는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었다. 풍속화의 대표적인 작가는 김홍도(金弘道)와 신윤복(申潤福)이었다. 김홍도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화폭에 담았고, 신윤복은 양반들과 부녀자들의 유희, 남녀간의 애정 등을 소재로 했다. 아울러 작자를 알 수 없는 민화(民畵)도 유행했다. 민화는 해와 달, 동물과 식물 등을 소재로 삼아 이것들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그림이었다.

판소리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춘향가(春香歌)의 내용으로 보아 그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판소리가 사대부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자 서민들의 관능을뿐만 아니라 사대부의 방언놀음으로도 가까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판소리는 사실과 음악이 민중의 소박하고 솔직한 것에 세련되고 어려운 것이 덧붙여져 복합적인 모습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강릉매화가·변강쇠타령과 같이 서민적인 재담으로 된 것은 도태되었다. 그리고 대신 충, 효, 의리, 정절 등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담은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등 5가지만이 보다 예술적인 음악으로 가다듬어져 판소리 다섯 마당으로 정착되었다.

판소리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충청도, 경기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전승되어

지역적 특징에 따른 여러 유형을 형성하고 있다. 전라도 동북지역의 소리를 동편제(東邊制), 전라도 서남지역의 소리를 서편제(西邊制)라 하며, 경기도와 충청도의 소리를 중고제(中高制)라 한다. 동편제의 소리는 비교적 우조(羽調), 웅장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호령조라고도 부르며 남성적이고 영웅적인 대목에 많이 사용)를 많이 쓰며 발성을 무겁게 하고 소리의 꼬리를 짧게 끊으며 굵고 웅장한 느낌이 든다. 서편제는 그와 반대로 계면조(界邊調, 슬픈 느낌을 주기 때문에 슬프고 여성적인 대목에 많이 사용)를 많이 쓰며 발성을 가볍게 하고, 소리의 꼬리를 길게 늘리며 정교한 느낌이 든다. 중고제는 동편제 소리에 가까우며 소박한 느낌의 소리이다.

판소리에서 관대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고수이다. 고수는 관대의 반주자, 지휘자, 극중 상대자 등의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첫째가 고수이고, 둘째가 명창'이라는 말도 생겼다. 판소리는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어 피지배층의 삶의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내었다. 또한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새로운 사회와 시대에 대한 희망



판소리공연.

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모든 계층이 두루 즐기는 예술이었다. 특히 청중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판소리는 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 온 우리문화의 정수(精髓)로 그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2003년 11월 7일 유네스코 제 2차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다.

셰익스피어 에세이

광대가 판치는 세상



박정권
대진대학교
영문학과교수

요즘 텔레비전 방송에서 코미디 프로가 매우 인기가 있는 모양이다. 살기가 어려우면 그 애환을 달래기 위해서 코미디언이 보여주는 추한 모습이나 괴상망측한 표정을 모습을 보고 웃는다. 사람은 너무 무거운 주제에 매달리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를 해소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청년실업률이 높아서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면 폭력시대나 계급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옛날부터 통치자들은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포츠나 축제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심하게는 이런 정치적 필요성에서 의도적으로 시민들을 우민화시키는 음모

엘리자베스 시대에 뛰어났던 광대는 캠프라는 희극배우였는데, 그는 인기가 너무 좋아서 모든 희극무대를 휩쓸었다는 기록이 있다. '파르나서스의 순례'라는 작품에서 디로모는 광대의 등장에 대해서 "야, 너 정말 명창하구나. 광대 없는 극이 없잖아? 걸 모르니? 캠프가 상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한 이래로 광대들은 머리카락이 떨어질 극 중에 나오지, 그러니까 너도 수레 밧줄에 묶여 팔러 나와야 되는 거야"라고 덜 떨어진 광대에게 설명한다. 그는 광대가 관객을 웃길 수 있는 연극적 수법에 대해서 "입을 비틀어 풀 수 있으면, 다리를 지팡이에 올려놓고, 칼로 치즈를 동강내거나 땅에 쏟아진 우유를 핥아먹을 수 있다면, 장담하건데, 그들이 신나게 웃을 거야"라고 대답해준다. 그야말로 배우의 입장에서 육체의 괴상한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관객들에게 균형이 깨어진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한국인들이 광대 몸짓을 하는 희극배우들의 불균형적 모습을 원하고 즐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문제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빼앗아 가버렸다. 그야말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밀려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조기 퇴직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퇴직 후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여 경제적 약자가 되고 만다. 소규모 자영업조차 자본의 힘으로 대규모 유통을 주무르는 대기업에게 종속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문은 좁아져서 열리지 않는다. 물론 능력이 있는 자들은 신자유주의적 환경에서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새로운 특권층으로 부상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제도가 있어 계급적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가 심화됨으로써 계급적 위화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다. 언제 나코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 한국인들은 심리적 탈출구를 코미디에서 찾고 있다.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가는 열등의식을 코미디언들의 추한 모습이나 과기한 몸짓을 관람함으로써 심리적 극복의 열쇠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 셰익스피어가 살던 엘리자베스 시대에도 거리에서 광대 짓을 해서 생계를 해결하는 광대가 있었다. 독재가나 전제군주들도 따분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곁에 광대를 두고 웃음을 즐겼다. 우리가 잘 아는 '리어왕'에서 딸들에게 권력과 재산을 다 내어주고 왕따를 당하는 리어를 놀리는 것도 광대이다. 광대들은 시민들을 어떻게 웃길 수 있는가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다.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보다 못나고 추한 광대의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위안을 얻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얻을 수 있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자기보다 못한 자들이 존재하는 한 자신 또한 존재할 가치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

문제는 광대의 희극적 몸짓을 즐기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데 있다. 모든 예술이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지만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못하고 도피적 제품으로 끝날 수 있다. 일상의 피곤함에서 벗어나서 웃음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의지를 접어버리는 것은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코미디물이 상업적으로 범람하고 예술적 질의 저하를 방치하는 것은 연극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더더욱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발명하는 것 같다. 광대는 사회발전을 위한 예술적 도구가 되어야하지 광대가 판치는 사회는 우리들의 공동체를 회화할 가능성이 높다. 광대는 광대의 역할에서 자신의 본분을 찾아야 하고 진지하게 행동해야할 지도자들은 좀 더 품격 있는 모습을 유지해야할 것 아닌가. 대통령의 언어가 광대의 언어로 전락함으로써 오는 사회적 혼돈은 우리를 얼마나 우울하게 만들었던가. 한국인들이여, 광대를 사랑하고 즐기라 그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지는 말라.

교육에세이 45

분명한 목표로 자기 계발에 힘쓰자

사랑하는 우리 포천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도 하순에 들어 곧이어 8월이 시작될텐데, 학생 여러분들은 방학중 생활 계획을 수립하여 평소처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은 빨리, 지나고 보면 세월의 빠른 흐름을 더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후면 2학기가 시작될 것인데, 방학중의 여유 있는 시간에 좀 더 철저한 마음과 기본으로 지난 학년초에 수립했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또한 그 동안 학교 생활은 건전하고 건강하였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인듯, 차근차근 2학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자기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창조한다는 신념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청소년 시절이 자기 인생의 갈림길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여 보람 있는 학창 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10대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나 그 이전 기성세대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20여년 동안의 급속한 사회 변화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 학생들에게 시간을 귀히 여기고 분명한 목표로써 성공적인 학창 생활을 설계하고 또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10대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時期)로서 신체적 성장이 완성되고, 또 새로운 것에 민감한 그들의 지(知)적, 정신적 활동은 내(內)적 품성과 지(知)적 성숙을 가능하게 하며, 이 시기에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학생들도 이미 익히 아시는바와 같이, 청소년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습관을 집중적으로 기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자기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창조한다는 신념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청소년 시절이 자기 인생의 갈림길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여 보람 있는 학창 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10대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나 그 이전 기성세대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20여년 동안의 급속한 사회 변화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지정주
포천여자중학교교장

수의 성실한 노력만이 미래의 광영(光榮)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지향하는 과정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인생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다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하는 데서 기쁨과 보람이 있고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수고스러운 최선의 노력이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고, 삶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최선의 노력이 성공의 지름길인 것이며, 준비하는 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거듭 읊어야 할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자기가 하려는 일의 의미를 알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강인한 인내로써 극복해 낸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때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현명하고 보람 있는 결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땀을 흘린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으로 만족감과 더불어 행복한 삶이 약속됩니다. 땀은 노력의 상징입니다. 땀은 창조와 원동력이며 성공의 위대한 원천입니다. 수확(收穫)의 양은 흘린 땀의 양과 정비례한다는 것이 땀의 미학(美學)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이 성공의 단초를 하다가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정상은 오를 수가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꾸준히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만이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끝까지 참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음을 늘 상기하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사색하는 습관을 배양하고 또 탐구정신으로 열심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10대인 청소년들은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멀리 보는 눈(眼)을 지녀야 하며, 아울러 방탕한 이상(理想), 뜨거운 정열(情熱), 드넓은 이상(理想)을 지녀야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수련의 자세와 근면하고 성실성이 없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홀로 성공도 10%의 물질과 90%의 정신이 있으면 성공 할 수 있다고 했고, 아인슈타인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을 역설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더하고, 다른 사람보다 한발 앞서야 하며, 또 다른 사람보다 더욱 노력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보다 더 좋은 행운은 없는 것이며, 노력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서 끈기 있게 노력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약속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절이 여러분의 전 생애(生涯)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중요하며, 최고로 값지기에 가장 활동적인 시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울러 최고로 값진 이 시기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친구)을 또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임을 되새기십시오. 감사합니다.

포천유림회관 임대입찰 공고

포천유림회관은 포천시 중앙상권지대인 포천버스터미널에서 100m내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벽돌조건물로 연건평 1,015평으로 예식장위주의 건물이며 1990년 8월 승강기를 미설치한 상태로 승강기설치가 가능하게 설계되었으며 주차장은 현재 약 50대의 주차능력이 되나 주차장 확장계획이 있으며 입주자가 건물의 개보수를 통하여 예식사업을 전개할 경우 고수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유림회관 주차장 및 건물일부를 임대 입찰공고함

1. 임대입찰을 공고하는 시월
 - 가. 유료주차장 약 200평 및 주차관리실
 - 나. 지하식당 약 170평
 - 다. 1층 예약실, 미장원등 약175평(사무실, 학원운영가)
 - 라. 2층 예약실, 폐백실, 신부대기실등 약 137평
 - 마. 4층 전체 약 218평(300석 대형회관, 식당겸용가)
2. 임대조건
 - 가. 보증금 : 120,000천원
 - 나. 임대료 : 최저가 월 6,500천원 부터
 - 다. 승강기설치 : 승강기는 5층(옥상)까지 설치하되 설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 포천향교와 협의설치하며 설치비용은 보증금에 포함, 승강기 설치비용은 약 150,000천원으로 예상되며 1년내에 반환예정
 - 라. 임대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자의 요청에 따라 재계약 가능
3. 입찰방법 및 입찰일시
 - 가. 입찰방법 : '2' 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최고가 임대료 지불자 낙찰
 - 나. 현장설명 및 입찰일시 : 2007. 8. 10(금) 11:00시 포천향교사무실
 - 다. 낙찰시 입찰보증금의 1/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준비

포천향교 전교 포천시 신읍동 23-4 유림회관 2층
포천향교사무실 ☎ 031-535-3186